소나무에 한국의 곡선미 담아내다 '문연남 개인전'

붓 대신 침을 사용 선묘와 발묵이 조화 되도록 작품 그려내

문연남 작가의 소나무

'한국의 미는 어떤 색채나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저절로 이어지는 곡선이 만들어 내는 내재적 자태나 끊어질 듯 이어지는 구성진 리듬감을 통해 잘 나타난다. 한옥의 의젓한 추녀의 곡선, 아낙네의 저고리 도련, 외씨버선 볼의 동탁한 매무새, 자연스럽 솟은 소나무의 곡선미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이는 이소 문연남 작가의 한국의 미에 대한 견해이다.

문작가는 이번 전시에선 한국의 미를 소나무에 피워낸다.

둥글고 잔잔한 소나무는 위압적이지 않을뿐더러 자연 그대로의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소나무만의 무한한 생명력과 기상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소나무 고유의 형태, 질감, 특성 등을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려 형상을 표한다.

작품 〈한담〉,〈산책〉에선 인간은 모든 것을 품는 자연의 품속에서 노닐 때 정서적 안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고, 〈기〉와〈조〉에서는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곡선미와 나무 사이의 공기감·리듬감·어울러짐의 표현을 통해 소나무의 내재적 본질을 강조했다.

작품은 붓 대신 침을 사용해 선묘와 발묵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먹과 종이가 서로 합일되도록 했다. 이는 선의 형태는 작가가 만들어가지만 먹의 번짐은 우연으로 만들어 간다는 표현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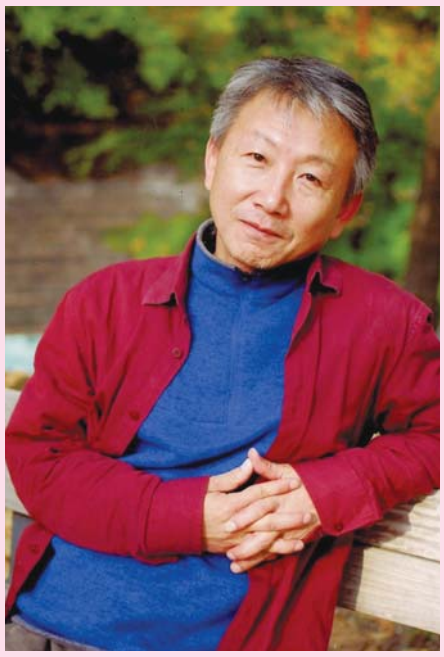
작가는 "오색찬란한 채색의 자극적이고 세련미를 추구하기 보다는 담담하고 순수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수묵이 내 심성에 맞는 듯하며 모든 색을 품는 먹색으로 그림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문연남 작가는 전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예원미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미술과를 전공했다. 현재는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및 전북여성미술인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환경사랑 전주이야기, 신운필전 초대전시, 프랑스국제연수원 초대전시, 전북도립미술관 기획 한국근·현대산수화전, 한일국교 50주년기념 한일미술교류전 in전주 등에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여행에서 만난 풍경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미리내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비움의 삶을 사는 시인 박남준

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자연' 주제 공연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예음한에서 개최된다.

이번 무대에는 자연과 더불어 스스로 자연이 되어 살아가는 시인 박남준을 초대해 '시인의 눈, 시인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박남준 시인은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위해 1991년 전주 모악산 자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2003년 더 깊은 지리산 자락 악양 동매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약간의 생활비와 세상 떠날 때 사용할 관값 200만원이 든 통장 외에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는 나눔인이자 작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밥상을 만들어 내는 자연인으로 주로 놀고 틈나면 또 놀다가 정말 더 할 게 없고 일상이 권태롭고 외로우면 시를 쓴다는 시인이다.

시인은 1957년 전라남도 법성포에서 태어나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2015년 아름다운 작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박남준 시인의 무대와 함께 할 음악은 '정가앙상블 소울지기'가 연주하며 영화 해어화 ost '사랑 거줏말이', 아카펠라 '겨울날 다슨 빛을' 등을 비롯해 '이 밤이 가기 전에', '별... 그리움' 같은 팀 고유의 창작음악들을 들려준다.

정가앙상블 소울지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또는 전수자인 세 명의 여성 가객들로 구성됐으며 시조와 가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은 2014년에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2015년에는 KBS국악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예기들의 삶을 소재로 만든 영화 해어화 중에 삽입된 '사랑 거줏말이'로 대중들에게 정가의 아름다움을 알린 바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063-620-2324.

/정해은기자

30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전주야행, 천년벗담' 문화제가 진행된다

전주야행, 해설이 있는 '달빛기행' 참가자 모집

30일 오후 6시와 8시 진행

전주야행추진단은 오는 30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전주야행, 천년벗담' 문화제 행사 기간에 진행될 〈달빛기행〉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과 더불어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생활유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유산 등을 통해 선인들의 철학과 지혜, 숨결을 체험해 보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글자에도 마음을 담다, 현판기행'(김진돈, 금석문학자), '경계도 아름답다, 꽃담기행'(이종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장, '역사를 굽어보다, 나무기행'(김광숙, 전주문화해설사) 등 테마로 구성되며, 기행에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이 곁들여진다.

30일 오후 6시와 8시에 진행되는 '나무기행'은 경기전(400년 회화나무, 용매, 배롱나무) → 오동나무(최명희문학관) → 600년 은행나무 → 향나무(최부자집) → 자귀나무(여명카메라 박물관) → 당산나무(오목대) 순으로 두 차례 열린다.

또 현판기행은 30일 오후 5시30분에 경기전 → 풍남문 → 오목대 → 이목대 → 자만동 금표 → 한벽당 → 향교, 19시 30분에는 향교 → 한벽당 → 자만동 금표 → 이목대 → 오목대 → 경기전 → 풍남문으로 길을 나선다.

한옥마을 아름다운 꽃담을 따라나서는 꽃담기행은 오후 5시와 7시 두 차례 진행되며, 경기전 사고석담 → 풍남문 전돌 → 전동성당 사제관 꽃담 → 강암서예관 꽃담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1회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행사장 이메일 jeonjunight89@gmail.com과 팩스 063-272-6995로 가능하다. 문의는 전주야행추진단 063-275-6944~5.

/정해은 기자

'태혜신카르마프리 무용단 샤인아웃 휘' 공연

내달 1일 오후 3시, 정읍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농악 재해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선정된 '태혜신카르마프리 무용단의 샤인아웃 휘(이하 샤인아웃 휘)'가 정읍에서 공연된다.

시에 따르면 9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행사주간을 맞아 샤인아웃 휘가 10월 1일 오후 3시 정읍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된다.

샤인아웃, 휘(shine out 빛을 뿜어내다, 揮 지휘하다)는 풍요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기원하는 농악을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아름답고 뛰어난 기량을 가진 무용수들이 세련되고 화려한 춤사위로 역동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무대를 펼쳐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주는 무대로 한국 무용계 최고의 제작진들이 만든 환상적이며 꿈결 같은 공연으로 알려져 있다.

김생기 시장은 "한국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의 환상적인 조합이 담겨 아름다운 무용예술의 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며 "인문학적 감성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함께 많이 관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 티켓은 현재 티켓링크를 통한 예매(☎1588-7890)와 정읍사예술회관 현장판매를 통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공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문화예술과(☎063-539-64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샤인아웃 휘 포스터

방통심의위, 차별·비하 인터넷 정보 584건 시정요구

'전라도는 몰살' 'X쌍도새끼들 격리' 등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7~8월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차별·비하 정보를 심의해 총 584건을 적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584건의 차별·비하 정보는 디시인사이드·일베저장소 등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워마드 등 특정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뉴시스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26일〉

▷쥐띠
48년생: 타인과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운이 아니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
72년생: 이동, 변동을 갖게 되면 좋은 운.
84년생: 미루었던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소띠
49년생: 어려워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함께 움직이면 해결되나 혼자는 불리한 운이다.
73년생: 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른다.
62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
74년생: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치니 주의하라.
86년생: 익숙한 일에 대해서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

▷토끼띠
51년생: 동기간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3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75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
87년생: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

▷용띠
52년생: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64년생: 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
76년생: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은 슬픔이 도래하는 운이다.
88년생: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나.
65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
77년생: 모든 화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89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말띠
54년생: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66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르니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다른 사람과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
9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양띠
55년생: 먼저 내보내면 후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67년생: 횡재를 바라면 재난이 발생하니 땀 흘려 노력하라.
79년생: 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면 탈이 나는 운이다.
91년생: 원행은 불리하나 그 외의 것에는 좋은 운.

▷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라.
68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92년생: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잡으면 반에 도달하기도 전에 포기.

▷닭띠
57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지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굴곡이 따르니 매사에 주의.
81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
93년생: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운.
58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운.
59년생: 지나친 의욕은 실패를 부른다. 정도를 지켜야 하는 때.
71년생: 질병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은 금물.